

지금 地理學과 地理教育은 위기인가, 기회인가?

남영우*

Is This Crisis or an Opportunity?: A Consideration about Current Issues on Geography and Geography Education

Young-Woo Nam*

요약 : 최근 교과부가 추진하고 있는 2009년 교육과정 개편과 2014년 수능시험 개편안의 내용이 알려지면서 교육계와 학계가 술렁이고 있다. 특히 지리교육의 축소 기도는 우리 지리학과 지리교육을 위기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형편이다. 지리학에 대한 홀대는 정책 입안자들의 몰이해에서 비롯된 측면이 매우 강하다. 이에 필자는 우리 학계를 성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지리학이 학문으로서 점하고 있는 중요성과 지리교육의 필요성을 재음미해 보았다.

주요어 : 자연국경이론, 혁명지리학, 문화교육, 세계화교육, 지력교육

Abstract : There emerge debates in education and academy due to the plans for reforms of 2009 curriculum and 2014 university entrance exam, recently announced by the Korean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The plans particularly include reduction of geography on school curriculum. The plans reflect government's ignorance of the importance of geographic education. The paper aims to suggest re-thinking of the importance of geography as academic discipline and the necessity of geographic education.

Key Words : natural boundary theory, revolution geography, culture education, global education, knowledge education

지리학은 고리타분한가?

“구글이 있는데 구태여 중등교육에서 지리교육의 필요성이 있는가?” 이는 수능체제 변경안을 구상한 어느 교육학자 심의위원의 발언이라고 전해진다. 그의 머릿속에는 자신의 학창시절에 배운 지리수업을 떠올리고 내뱉은 실언이라고 치부해 주기에는 너무 경망스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성세대들은 지리학을 지명이나 암기시키는 고리타분한 과목 정도로 기억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프랑스 지리학자 Paul Vidal de la Blach는 “지리학은 오래 되고 낡은 과학이지만 생생한 원천, 즉 다양한 지상의 드라마와 재차 접하게 됨에 따라 주기적으로 회춘하는 학문이다.”라 일갈하였다. 모로코 출생의 이슬람교도인 Ibn Batutah(1304~1368)는 그의 저서『이븐 바투타 여행기』에서 “여행을 고집하는 정신, 새가 둥지를 버리고 어디론가 날아가 버리는 것과 같이 나는 집을 버렸다.”라 슬회하였다. 그의 저서는 인류의 문명론을 설파한 불후의 명저로 남아 있다. 아무튼 이들의 발언은 세상이 지속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지리학

* 고려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Korea University), namyw@korea.ac.kr

의 연구대상이 다르지 않는 샘플처럼 영원할 수 있을
을 시사하는 말이며, 지리학의 연구대상이 결코 고리
타분할 수 없는 이유인 것이다.

지리학은 권력의 도구인가?

여로부터 정치권력과 군사권력은 지도로 공간을 관
리할 수 있기 때문에 지도를 통치의 도구로 삼았다. 동
서양을 막론하고 권력자들은 지도에 대한 독점적 이용
권을 장악하였다. 당시 지도는 지리학자에 의해 제작
되었다. 지도가 담고 있는 지리적 정보는 권력의 도구
였으며 어떤 시기에는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기능을 수
행하는 도구이기도 하였다. 그리스의 지리학자이면서
역사학자인 스트라보는 “지리학은 과학의 필요나 국가
의 필요에도 기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활동적 시민과
지휘관, 정부 수뇌부에도 기여하는 학문분야이다.”라
평가하였다. 이는 지리학이 본질적으로 정치생활의 수
요에 부응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대목이다. 왕실의 자
제들은 장차 보위를 이어받기 위한 예비교육으로 지리
학을 공부하였다.

대륙발견시대의 지리학은 오랜 동안 유럽 중심적 ·
백인 중심적 학문이었다. 특히 프랑스에서는 자연국경
이론을 정밀화하기 위하여 지리학의 도움을 빌려야만
하였다. 16세기 이후 자연국경론자들은 국경을 근린국
가 간의 역학관계로부터 잉태된 움직이는 경계로서가
아니라 미리 설정된 경계인 객관적 부여물로서 인식하
고 있었다. 이 이론은 유럽 전역으로 확대되어 제국주
의의 이념적 발판이 되었다.

지리학과 정치와의 관계는 비스마르크의 사상에서
도 엿볼 수 있다. 그가 “지리학은 역사의 유일한 요소
이며 불변하는 구성요소이다.”라고 주장한 것은 마치
드골 장군이 “명령하는 것은 지리학이다.”라고 한 말
과 일맥상통하는 발언이다. 정치가들은 게르만 · 슬라
브 · 헝가리 등의 주요 민족집단의 경계를 정하던 1919
~1920년의 조약체결 시에 유명한 지리학자들을 총동
원하였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시 하와이 진주만을
공격하기 위한 작전계획에 지리학자들을 참여시켰다.

1980년대 구소련의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냉전체제의
관리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예멘과 에티오피아에 대한
영향력 발휘, 호르무즈 해협과 서남아시아에서의 석유
자원 관리를 위해서도 구소련의 지리학자들이 동원되
었다. 지리학자의 이용은 미국 역시 마찬가지였다. 베
트남 전쟁 중 지리학은 1965~1967년과 1972년 월맹
의 제방 시스템을 파괴하는 작전에 지리학 이론을 제
공한 것이다.

지리학은 정치권력뿐만 아니라 경제권력에도 기여
할 수 있다. 과거 탐험가 · 식민통치자 · 군인들에 의한
지리학은 상업지리학이었고, 종주국 대기업 수뇌부의
지리학은 자원지리학이었다. 중세 상인의 계보를 이은
지리학은 지역적, 국가적, 다국적 공간 속에서 투자와
공장입지에 방향을 제시하게 되었고, 기업가들은 노동
력, 임금, 소비시장, 사회적 비용, 관세, 통화와 관련된
경제지리학 · 유통지리학 · 금융지리학을 고려하지 않
으면 안 되었다. 특히 세계화에 따른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는 세계도시론의 등장을 촉발시켰다.

과거 군사독재가 우리나라를 통치하던 시절, 중등교
육에서 지리과목은 은연중에 개발독재에 앞장서 그 역
할을 다하였다. 그 시절 세계적 석학인 Friedmann은
한국까지 달려와 개발이론을 제공해 주었다. 지리교육
이 개발독재의 전도사 역할을 한 것은 물론 이 나라 지
리학자가 의도한 바는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나
라의 국토개발과 도시발전을 지리과목이 홍보한 것이
다. 물론 오늘날 그 공로(?)는 유감스럽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오늘날에도 우리나라가 세종시 문제로
달아올랐을 때 석학의 반열에 들 수 있는 Hall, Sassen,
Scott, Harvey 등의 지리학 석학들이 우리에게 충고를
아끼지 않았었다. 최근 국가 주요정책으로 채택된 사
업들이 지리학자의 머리에서 고안된 사실도 국민들은
잘 모른다.

지리학은 반독재 학문인가?

대륙발견시대에는 지리학자들이 탐험가의 역할을
주도하여 제국주의의 선봉에 서기도 하였다. 그들은

식민지 건설에 앞장서 자원수탈에 공헌하여 왕실에 충성을 다하였고, 그 덕에 지리학회의 위치는 왕립학회로서 후한 대접을 받았다.

미국과 프랑스의 지리학자들은 마르크스주의의 영향을 받은 좌파가 많은 편이며, 지리학은 정치투쟁과 반정부 운동에도 기여하였다. 좌파 지리학자들이 지리학을 이용하는 것은 타인을 지배하는 자의 지식을 이해하고 권력을 보유하고 있는 자와 싸우기 위한 이론 제공 때문이었다. 프랑스의 지리학자 Victor Prévot (1981)는 『지리학은 어디에 기여할 수 있나』라는 그의 저서에서 급진주의지리학(radical geography)이 사회질서를 개선해 보려고 대중선동을 위한 연막을 피면서 노력할 때 전통지리학은 부조리한 사회질서를 암묵적으로 인정했다고 비판하였다. 현실참여를 앞세운 지리학자들은 마르크스주의에 동의하는 인물이 많았다. 그들은 생산체계, 자본주의, 제국주의를 바탕으로 한 착취를 강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투쟁적인 지리학 신봉자들은 마르크스처럼 시간 속만이 아니라 공간 속에도 인간을 자리매김하여 사회적 관계와 공간적 분화를 고찰하였다. 또한 그들은 메갈로폴리스로 둘러싸인 현대세계의 위기, 부의 비인간적 집중, 발전도상국의 슬럼, 불평등의 증대, 환경오염 등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나치독일의 Christaller는 나치당에 가입하여 파시즘에 빠지더니 전후에는 공산주의자가 되기도 하였다. 그의 사상은 중심지이론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일탈된 행동에서만 엿볼 수 있을 뿐이다.

Prévot(1981)는 이러한 동향을 일컬어 전투적 지리학, 압제적 지리학, 반란의 지리학, 혁명지리학 등의 용어를 사용한 바 있다. 특히 혁명지리학은 마우저동[毛澤東]의 대장정 성공이 지리적 지식과 농업환경의 이해에 있다고 보았고 체제바라의 실패를 지리적 준비의 부족으로, 카스트로의 게릴라전의 성공을 산악지대에 대한 이해로 설명하고 있다. 그는 또 크메르 루즈군의 캄보디아 학살사건을 혁명지리학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개연성을 남겨두었다.

지리학자는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세계의 경제·사회적 변혁에 참여해야 하며 비판적 정신을 일깨운다. 일제강점기 한국인들은 지리학 및 역사학을 공부하기 어려웠다. 이는 민족정기를 촉발할 가능성을 염

두에 둔 두려움의 발로였다. 지리학 1세대들이 일제강점기 本科에 진학하지 못한 채 豫科에 머물렀던 것도 그 이유 때문일 것이다. 이와는 달리 사회주의 국가의 경우는 지리학을 다른 학문에 우선한다. 이는 지리학의 학문적 가치는 물론 사회적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는 반증이다.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를 중시하는 국가의 경우는 더 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지리학자들은 20세기 말 자본주의의 재편과정에서 나타난 세계질서의 변화를 가장 먼저 감지하였고,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국가별·도시별로 심화되어가는 양극화현상을 가장 먼저 지적한 바 있다. 여기에는 Abu-Lughod와 Beaverstock를 비롯하여 Taylor, Soja 등이 앞장섰고, 인접분야의 Sassen과 Scott, Krugman 등의 학자들도 지리학으로 귀화하여 공헌한 바나 다름없다.

문화교육과 세계화교육으로서의 지리학

키타다[北田宏藏]는 일본이 제국주의적 행위에 반성하고 지리·지도를 평화적으로 이용하고 발전시켜 나아가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그는 도쿄제국대학을 졸업한 후 고마자와[駒澤]대학과 호세이[法政]대학 교수를 역임하고 일본 지도연구소 평의원으로 지리학 및 지도의 보급에 힘을 쏟은 인물이다. 그는 「사회지리」라는 기관지에서 지도를 문화유산으로, 지도교육을 문화교육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면서 지리교육의 소중함을 호소하였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지리학 및 지도학은 단순한 사회과학이 아니라 문화교육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리학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시작된 학문이며, 지도는 문자의 발명에 앞서 존재해 온 문화유산이다. 나폴레옹 역시 지리학을 좋아하였고, 그 속에서 세계관을 키웠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가 지리학을 좋아한 것은 지도 때문이었다. 나폴레옹은 '참모본부지도'라 불리는 8만 : 1 축척의 프랑스 최초의 지형도를 가장 소중한 자산으로 여겼다. 마카벨리는 군대를 이끄는 장군이 우선 먼저 해야 할 일은 모든 지리적 장소와 자연을 알아야 하는 것처럼 자국 군대가 있는 국토의

모든 것에 대하여 정확한 지도를 작성하는 일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뉴턴이 대학에서 물리학만이 아니라 지리학도 가르쳤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다. 그는 지리학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일본 지리학계의 유수한 논문집 중 하나인 「지학잡지」의 전신 「도쿄지학협회보고」는 1879년 4월에 창간된 지리학 논문집이다. 이 논문집은 현재 일본의 대표적 지리학 논문집인 「지리학평론」보다 훨씬 빠른 시기에 창간되었다. 이 학회가 창간된 배경에는 국가발전을 위해서는 지리학 전문기관의 필요성을 감지한 와타나베(渡辺洪基)라는 인물이 있었다. 그는 오늘날 내각에 해당하는 태정관 대서기관 출신의 외교관이며 1878년 오스트리아 주재 서기관으로 재직 중 지리학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그는 빈 지리학협회에 정식회원으로 가입하여 처음 지리학을 접하게 되었다. 지리학을 공부할수록 국가발전에 지리학이 많은 가능성을 가진 것을 알게 되어 일본에도 지리학회가 필요함을 통감하게 되었다. 학회의 창립을 위하여 조선을 비롯한 러시아·이탈리아·네덜란드 공사를 역임한 외교관들이 중심이 되어 협회창립을 준비하였다. 그들은 서구 선진국들이 지리학을 중시하는 전통적 관행을 깨달은 것이다.

일본의 선구적인 철학자 우치무라(内村鑑三)는 지리학을 배우지 않고 정치를 말하지 말 것이며, 세계지리를 모른 채 국제화를 논하지 말라고 단언하였다. 지리적 마인드가 없으면 훌륭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었다. 국토지리는 국가정체성과 애국심을, 세계지리는 글로벌 마인드를 길러준다는 것이 지론의 요체이다. 오늘날의 한국정치가들 가운데 지리학적 사고를 지니고 있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

우리의 지리학과 지도교육은 날이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학교교육에서는 그렇지 못한 것 같아 유감이다. 최근 필자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개정 중인 수능체계개편을 위한 중장기 대입 선진화 연구회 연구결과 발표 세미나가 개최되었다는 소식을 접하였다. 2014학년도 수능시험 개편안에 따르면 고등학교에서 지리교육이 상당히 위축될 것 같다. 핵심적인 내용은 사회탐구영역 선택과목 중에서 지리가 1개인 반면

일반사회와 역사는 2개라는 것이다. 단순히 과목수의 문제가 아니고 한국지리와 세계지리를 통합하여 사회탐구 선택의 1과목으로 정해질 경우, 한국지리와 세계지리 2과목을 공부해야 수능을 치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리를 선택하는 학생이 급격히 줄어들 것은 당연하다. 더욱이 충격적인 것은 현재 일선 학교에서 한국지리와 세계지리 두 과목을 동시에 교과과정에 포함시키고 있는 학교는 극소수에 지나지 않다는 교육현장을 감안하면, 최악의 경우 수능에서 지리를 선택하는 학생이 전무할 수도 있다는 것이 일선 지리교사들의 우려이다.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육이 대학입시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번 문제는 교육과정의 문제보다 더욱 심각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단지 지리교육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지리학계의 존립기반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세계화시대에 세계지리를 배우지 않게 되고, 국가간 영토분쟁이 증대하면서 대두될 영토와 영역을 다루고 한국인의 정체성과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가르치는 한국지리를 학생들이 배우지 않게 된다면, 자라나는 우리의 미래 세대가 한국을 위한 인재로 자라날 것으로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는가. 세계화의 진전에 따른 대응교육은 물론 영토교육과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교육을 목표로 하는 지리교육 전체의 절박한 위기 상황이라 아니할 수 없다.

맥아더 사령관은 왜 패전국 일본의 지리교육을 중단시켰는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연합국최고사령부(GHQ)는 도쿄 히비야 사거리에 본부를 설치하였다. 이곳은 전시중에는 일본 동부사령부로 사용하던 건물이었다. 맥아더 사령관은 1945년 8월 29일 필리핀 마닐라를 출발하여 오키나와 비행장에서 1박을 하고 다음 날 아쓰기 비행장에 도착하였다. 맥아더는 다시 승용차에 옮겨 타 요코하마에 도착하여 호텔에 여장을 풀 후 먼저 CIS (민간첩보국) 부장을 불러 도조(東條英機) 육군대

장을 체포할 것과 전범용의자 리스트를 작성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9월 27일 GHQ가 내린 명령 및 지령은 군수품에 대한 '최고사령관 처분명령'이었다. 이것은 작전용 또는 기념품을 제외한 물자의 처분에 관한 명령이었다. 그 가운데 주목되는 내용은 지도를 소각하지 말라는 명령이었다. 더 나아가 일본군이 작전행동과 관련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하려고 하는 일체의 자료를 요구할 경우, 언제라도 각 점령군사령관에 알려 즉시 조치를 취하라는 지시가 하달되었다. 지도를 중시하는 맥아더 사령관의 의중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만약 그의 명령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조선말부터 일제 참모본부 간첩대가 전개한 측량첩락 사실을 몰랐을 것이다.

12월 31일에는 문제의 지령이 내려졌다. 그것은 도덕 및 지력교육(地歷教育)을 폐지하라는 내용이었다(당시에는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리적 지식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여 지리역사를 '지력'이라 불렀다). 이는 연합군최고사령부가 민주화교육의 일환으로 발명한 것으로 일본의 학교교육에서 도덕을 위시하여 지리 및 지도 과목과 역사 과목을 폐지하라는 것을 의미한다. 당시 일본의 학교교육에서 도덕과 역사 과목은 수신(修身)이란 이름으로 일본제국과 천황에 충성케 하고 왜곡된 역사인식을 심어주는 내용이었으므로 그 지령의 취지를 이해할 수 있으나, 지리 및 지도과목에 대한 폐지명령은 의외였다.

왜 맥아더는 일본의 학교교육에서 지리와 지도교육을 금지시켰을까? 그것은 맥아더가 지리학 및 지도교육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는 지리교육의 효과가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국가관을 갖게 만드는 데에 있어서 필수적임을 잘 알고 있었다. 이러한 맥아더의 명령을 보고 일본의 지식인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일본인들이 지리학을 배우지 못하면 '나무를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대국관(大局觀)의 결여를 우려한 것이다. 지리적 사고와 활용은 지구가 직면하고 있는 환경문제와 세계관의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일본의 지성들은 지리·역사적 지식은 과거의 상황은 물론 생각과 행동의 경위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추론하여 이해할 수 있게 만들

어준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일본의 지성들은 연합국 사령부가 왜 지리와 역사교육을 제한하지 않으면 안 되었는지 곱씹어 보면서 반성해야 할 것이다. 이는 우리 교육 당국자도 귀담아 들어야 한다.

지리학은 영원히 필요한가?

1943년경 인간의 무한한 호기심을 자극한 생백쥐베리의 『어린 왕자』는 지구상에 7천명의 지리학자 밖에 존재하지 않던 시기에 이렇게 얘기하였다. “지리학이란 분야는 모든 책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하여 쓰고 있다. 유행에 뒤지는 일은 절대 없다. 산이 장소를 바꿀 리도 없고 바닷물이 마를 일도 없다. 우리들은 언제까지나 변치 않는 것을 기록한다.” 그러나 실제로 지리학자는 수없이 많다. 누구나 지리학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공간은 일상적인 것이므로 지리학은 대중적인 것이다. 지리학은 인간지식의 본질적 차원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없다. 인간의 호기심은 무한하다. 지리학은 이러한 인간의 호기심을 대리만족시켜주는 대안적 분야이다.

지리학은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꿈과 상상력을 키워주는 학문분야이다. 자연경관을 인문화하여 인문경관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분야는 오직 지리학뿐이다. 즉 자연경관이 인류에 의해 조직되고 이용되며 정비되는 연속적 점거과정을 이론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Prévot는 교육현장에서 지리교육의 지위가 저하하는 것을 위험한 현실이라고 지적하면서 인본주의의 함양이 위기에 처할 수 있음을 우려하였다. 이 시대에 인본주의에 우선하는 가치가 또 있을까.

최근에 이르러 일본과 미국을 중심으로 '지리학과'의 간판을 다른 명칭의 간판으로 바꾸려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즉 광역(또는 지역)시스템학과·공간정책연구과·지구환경과학과·지역환경학과·국제관계 및 지리학과·지리학 및 도시계획 프로그램학과·지리학 및 지역개발학과 등과 같이 학문적 정체성이 모호한 명칭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GIS를 표방하는 학과의 명칭은 공간통계학을 앞세워 프로젝트 중심의

로 변질되어 지리학 저편으로 멀어져 가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지리학과 인기가 퇴조하고 학생유치 및 취업문제와 기금확보를 위한 자구책으로 이해되지만 학문적 정체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만 허용되어야 한다.

지리학자가 공장과 기업의 입지를 설명하거나 각종 자원의 분포를 지도화한다면 교육의 소재로 나타나는 것은 경제학이다. 지리교사가 도시성장을 가르친다면 그 속에는 사회학·인구학·행정학·환경문제를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또 지리교사가 자연지리학 이론이 가미된 기후변화와 환경문제를 다루는 것을 어느 과목이 대신할 수 있을까. 지리학은 종합과학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는 의미이다. 지리학은 추상적이고 현학적인 내용보다 구체적인 것을 선호한다. 구체적인 여러 요소 간의 인과관계를 종합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은 지리교육에서 함양시킬 수 있다. 그런 이유로 지리학은 대국관을 길러준다는 것이다. 지리학은 실재하는 환경과 구체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분야이므로 정직하고 구체성을 띠는 학문이다.

지리학의 성찰과 반성

필자는 지리학을 종합과학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종합과학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그것에 걸맞는 실력을 갖추어야 한다. 지리과목을 수능과목에 넣으면 여러 과목에 대한 종합적 이해가 가능하다는 확신을 주어야 하며, 지리학 전공자를 공직이나 기업에 채용하면 역사·정치·경제·사회·행정학 전공자 몇 명을 채용한 효과가 보장된다는 확신을 주어야 한다. 과연 한 그루의 나무는 보지 못해도 숲 전체를 볼 수 있는 능력배양이 가능한지 우리나라 지리학계가 스스로 자문자답해 볼 필요가 있다. 정보의 종합적 분석능력을 필요로 하는 정보기관의 예를 보면, 미국의 CIA와 영국의 SIS를 비롯하여 이스라엘 Mossad와 러시아 GRU 등에는 대학에서 지리학을 전공한 인재를 중용하거나 조언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지리학의 중요성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려면 지리학은 전문화와 병행하여 종합적 분석능력을 증시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깝다. 얼마 전 교원임용시험을 위한 지리학 자체의 과목결정 시에 지리학 내부의 밥그릇 싸움이 있었다. 지리학의 파이는 작아지고 있는데, 그 파이를 키울 생각보다는 내 파이 생각만 한 것도 사실이 아니었는가. 지금 우리는 지리학이 어용학문의 성격만 갖는 교과목이 아니며 曲學阿世하는 학문분야가 아님을 세상을 향하여 소리높이 외쳐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용성 있는 글로벌 정보를 조직화해야 하고 많은 이론을 제공해야 한다.

우리나라 지리학계에 GaWC와 같은 연구그룹이 몇 개만 있어도, 우리나라 지리학 이론 중에 Christaller의 중심지이론에 필적할 이론 몇 개만 나왔어도 지리학과 지리교육은 이렇게 소홀한 대접을 받지 않을 것이다. 지리학자의 증가에 따라 층이 두터워지고 분야가 다양해졌으나 지역전문가가 드물고 지리학의 기초용어를 왜곡하는 일이 비일비재한 것은 무엇으로 설명해야 하나? 지리학자가 지리학의 기본개념인 등질지역과 기능지역을 이해하지 못하는 현실은 어떻게 변명해야 하나? 기능지역과 결질지역의 차이점까지 구분해 달라는 요구를 한다면 오히려 과분한 욕심일 정도이다. 아직도 논문집에 수도권지역, 강남지역, 경기도지역 운운하는 용어가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지리교육에서 지지교육은 아직도 chorography 수준을 뛰어넘지 못하여 지역적 특성을 재구성하는 regional geography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최근 각 대학에 설립되고 있는 지역학과가 정치학의 독무대가 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시카고대학의 지리학과가 폐과되던 때를 벌써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과연 인본주의에 입각한 문화교육을 선도하는 지리학의 위상을 정립할 방안은 무엇인지 머리를 맞대야 한다.

지리학이 대국관을 함양하는 분야이기에 발전하는 나라는 지리교육을 중시했고, 지리학이 애국심을 길러 주기에 국력을 떨치는 데 전념했던 나라는 지리학을 사랑하였다. 지리학과 지리교육을 소홀히 하는 이 나라에 과연 미래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참고문헌

Ibn Khaldun, 1987, *The Muqaddimah* (Translated by F. Rosenthal), Routledge, London.

Prérot, V., 1981, *A quoi sert la géographie?* Le Centurion, Paris.

교신: 남영우, 136-701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5가 1번지,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이메일: namyw@korea.

ac.kr, 전화: 02-3290-2363)

Correspondence: Young-Woo Nam, Anam-Dong, Seongbuk-Gu, Seoul, 136-701, Korea (e-mail: namyw@korea.ac.kr, phone: +82-2-3290-2363)

최초투고일 2010. 10. 18

수정일 2010. 10. 20

최종접수일 2010. 10. 21